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목 차

- I. 최근 국제유가 동향
- II. 유가 상승요인 및 향후 전망
- III.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I. 최근 국제유가 동향

□ 4월 이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고유가 추세

- 2007년 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는 점차 상승 추세를 보임
 - 수급불안 등으로 2006년 2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예상치 못한 이란 핵문제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8월 초에 배럴당 70달러 선(Dubai유 기준)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그 이후 수요증가 둔화, 알래스카 유전 정상 가동 및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 55~6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음
 - 2007년 초 57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온난한 기온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 석유재고 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급락(49달러)을 보였음.
 - 그러나 1월 중순이후 이란 및 나이지리아 소요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요인 증가와 OPEC의 감산이행, OECD 국가들의 석유재고 감소 등 석유 수급상황의 변화로 인해 점차 상승추세를 보임
- 4월 들어서는 이란 핵문제 및 대선 과정에서의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의 심화와 미 석유재고 감소, 투기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6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음

국제원유가격 변동 추이

(단위 : 달러/b)

	2006년			2007년			
	1/4~2/4	3/4	4/4	1월	2월	3월	4월
Dubai	61.55	65.57	57.30	51.67	55.89	58.92	63.98
WTI	66.17	70.05	60.10	54.43	59.25	60.42	69.06

주 : Dubai는 현물, WTI는 익월인도분 선물기준이며, 기간중 평균가격임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 본고는 산은경제연구소 이민식 수석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님

II. 유가 상승 요인 및 향후 전망

1. 유가 상승 요인

가. 주요 원유 수출국의 지정학적인 불안요인

- 이란, 나이지리아 등 주요 원유 수출국의 국가간 갈등, 내정 불안 등 정치적 불안이 심화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
 - UN 안보리가 이란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이란에 핵개발 중단 압박을 가중시키는 동안 이란은 영국 해군을 나포·억류함에 따라 한때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됨
 - 나이지리아는 4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 격화되었고 대선 후 여당 압승에 따른 야당 및 니제르 델타 지역 무장단체 등의 반발로 혼란한 정치 상황이 지속됨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수년간의 정정불안으로 막대한 양의 공급 차질을 빚어 옴
 - 정정 불안으로 무장단체들의 석유시설 테러가 빈번해 짐에 따라 나이지리아 생산차질 물량은 '07년 4월 현재 약 60만 b/d수준(총생산능력의 약 20%)에 이르게 됨

나. 수급 불안

- OPEC의 지속적인 감산이행으로 수급상황 악화
 - 작년 10월 및 12월 OPEC의 두 차례 감산(총 170만 b/d) 결정 이후, OPEC 생산량은 감산합의 이행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OPEC 10개국 생산량 추이

(단위 : 만 b/d)

구 분	2006. 12월	2007. 1월	2007. 2월	2007. 3월
생 산 량	2,701	2,686	2,649	2,633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 미국 중간유분 및 휘발유 재고 감소
 - 미국의 휘발유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정제가동률 증가로 인해 중간유분 및 휘발유 재고가 감소함

미국 석유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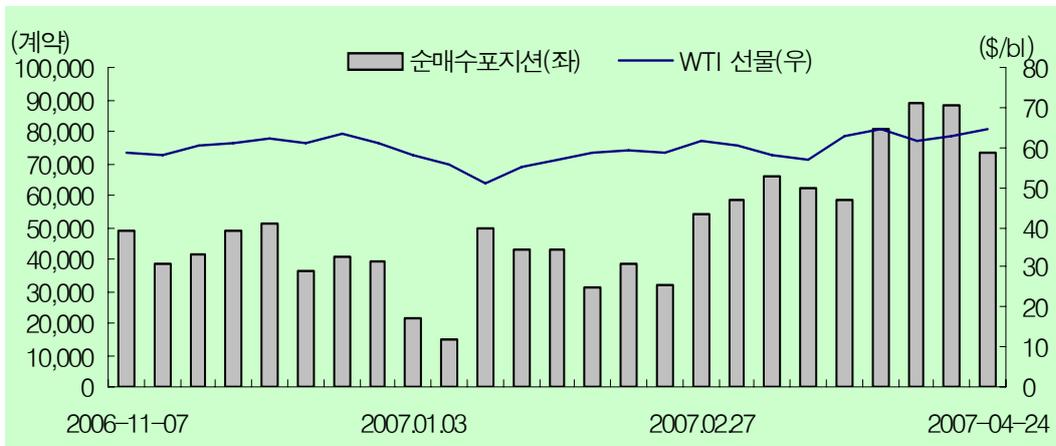
구 분		2007.2.23	2007.3.23	2007.4.20	2007.4.27
재고 (천배럴)	원 유	329,004	328,414	334,479	335,648
	중 간 유 분	124,503	118,029	117,332	117,134
	휘 발 유	220,175	210,231	194,214	193,099

다. 투기자금 유입

- 선물시장 투기자금의 척도로 이용되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 TC)의 WTI 순매수포지션은 2월 하순부터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투기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4월 24일 기준 순매수 계약수는 2월 말 대비 37,790 증가(145.1%)한 63,829건을 기록하였음

WTI 선물가격과 순매수포지션 추이

일 자	2.27	3.6	3.13	3.20	3.27	4.3	4.10	4.17	4.24
계 약 수	26,039	36,323	37,114	44,366	40,179	66,675	75,184	80,815	63,829
WTI 선물	61.46	60.69	57.93	59.25	62.93	64.64	61.89	63.10	64.58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2. 향후 전망

-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 유지 예상
 - 이란 핵문제 및 나이지리아 등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이란 핵문제와 관련, UN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이 UN안보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재에 들어 갈 수도 있음을 함의하였고 이란은 이에 크게 반발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4월 대선 후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 등으로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이 선거결과를 인정하고 있어 정정불안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OPEC의 감산 이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예상됨
 - OPEC는 2006년 10월 및 12월 임시총회에서 120만 b/d, 12월 50만 b/d 감산 결정으로 2007년 들어와 꾸준히 감산을 이행하고 있음
- 석유시장 영향력이 큰 미국 석유시장에서 휘발유 성수기(5월 말~9월 초)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됨
 - 2007년 4월 30일 현재 미 휘발유 재고는 11주전 대비 3,300만 배럴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15% 감소한 수준임
- 기타 유가 강세요인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WTI 순매수포지션의 지속적 확대 등 투기자금 유입은 향후 유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함
 - 2006년 4/4분기 이후 OECD 주요 국가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최근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의 수요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세계 주요 기관들은 2007년 2/4분기 이후 평균 기준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음

해외 주요기관의 2007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 달러/bbl)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06년 평균	2007년				
			1/4	2/4	3/4	4/4	평균
EIA	WTI	66.02	58.08	64.99	67.33	66.67	64.27
PIRA	WTI	66.00	58.00	64.80	64.00	60.65	61.85
CERA	Dubai	61.46	55.41	62.83	63.00	61.00	60.56
CGES	Brent(D)	65.00	57.80	64.40	65.40	66.60	63.60

주 :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Ⅲ.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유가상승은 물가상승 외에 국내외 수요 감소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기위축 및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 유가상승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산업별로는 유류 의존형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원가 상승 요인 및 채산성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류의존형 산업중에서는 석유화학 및 섬유의 원가상승 및 채산성 하락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석유화학 및 섬유는 원재료의 석유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시 직접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원가구조를 갖고 있고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음
 - 정유는 제조원가 상승에 반영되나 가격 전가가 가능해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는 비금속광물 및 철강 업종에서 채산성 하락이 예상됨
 - 비금속광물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원가상승 및 채산성 하락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철강은 유가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여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비철금속은 원가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용이하여 채산성 하락 정도는 비교적 작음
 - 에너지 저소비업종의 원가상승 및 채산성하락 정도는 미미
 - 전기전자는 유가의존도가 매우 낮아 제조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및 부품 조달가 상승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조선은 조선업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에 전가가 불가능한 구조로서 다소 채산성 악화가 예상됨
 - 일반기계는 원가상승 요인이 적고, 제품가격 전가도 가능하여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첨부>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채산성

□ 유류의존형 산업

업종	유가상승 영향	채산성
정유	- 유가 상승은 제조회가 상승에 반영되나 제품 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가격 전가가 가능하므로 채산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음	※
석유화학	-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인 납사는 원유에서 추출하므로 원유가와 납사가는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제조회가가 타제조업보다 더 높아지는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가격상승압력을 수출가격 및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할 경우 여타 산업에 비해 기업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섬유	- 섬유산업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석유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임 - 이는 국내 섬유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섬유와 화섬직물이 유가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임 - 고유가로 인한 제조회가 상승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약화에 이은 수출둔화 우려로 전체 생산이 감소할 수 있음	☔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업종	유가상승 영향	채산성
비금속광물	- 원재료의 소성과정에서 다량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임 - 제조회가 중 연료비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유가상승은 제조회가 상승 요인임	☔
철강	- 석탄, 가스, 전력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가인상의 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 - 유가인상에 따른 제조회가 인상부담은 많은 부분을 철강업체가 자체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채산성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비철금속	- 제련과정에서 에너지소비가 많으나 원가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용이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미미 - 수요산업의 경기에 다소 영향을 주는 간접적 영향있음	☺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업종	유가상승 영향	채산성
전기전자	- 유가의존도가 매우 낮아 유가상승에 따른 제조회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유가상승이 직접적인 생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거시적 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 직접 제조회가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원가 상승 압박 크지 않으나 원자재·부품 조달가 상승시 부담 예상 - 유가 상승시 하이브리드차에서 앞선 일본업체와의 격차 확대	☔
조선	-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약 2년내외가 소요되어 단기적으로 제조회가 상승분을 수출에 전가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
일반기계	- 일반기계계 경우 관련 중간재의 석유화학관련 제품 의존도가 매우 낮음 -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효과가 낮고 비용상승분의 약 30% 내외를 제품가격으로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산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 : ☔(채산성 악화의 정도가 아주 큼), ☔(채산성이 다소 악화), ☺(채산성 악화의 정도가 미미), ※(거의 영향 없음)